

2. 마지막 일들 - 3.

불신자의 죽음

(DEATH OF UNBELIEVERS)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요 8:24)

* * *

1. 죄는 수명을 단축시킨다.

누구도 자기의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이 없다(전 8:8). 하나님은 아담이 죄를 범한 후, 사람의 수명을 백 이십 년으로 한정하셨다(창 6:3).¹ 물론 수명이 천년에 이르던 인류가 갑자기 그 당장 백 년 남짓의 수명으로 줄어든 것이 아니다. 사람의 수명은 점차로 줄어들었고,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인류는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 수명에 미치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다. 심지어 모세는 백 이십 년이라는 한계에 훨씬 못 미치는 칠십 세를 사람의 수명으로 말하고 있다. “우리의 연수가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시 90:10). 그러하니 성경이 말하는 ‘장수’는 칠십이라는 연수에 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죽을 때’가 이르기 전에 죽는 사람들이 있다. 성경의 표현을 쓰자면 ‘수명이 짧아지는 사람들’(잠 10:27), 또는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 버리는 사람들’(욥 22:16)이다. 그 이유는 ‘죄’이다. 예수님이 삼십 삼 세를 일기로 죽으신 것은 수명이 짧아진 경우가 아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수명을 그 기간으로 정해 놓으셔서 그 때 죽음을 맞으신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 모두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기간을 살고 자기 생을 끝낸다. 짧게 생을 끝낸 신자들의 경우, 성경이 밝히는 이유는

¹ 어떤 사람들은 ‘백 이십 년’의 기간을 노아가 홍수를 대비하기 위해 방주를 지은 기간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잠깐만 시간을 내어 성경이 기록한 연대를 계산해보면 이 주장이 잘못된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노아는 오백 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을 낳았다(창 5:32).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는 이미 그의 아들들이 장성하여 배우자들을 두고 있었다(창 6:18). 만약 노아의 아들들이 결혼을 빨리해서 모두 십대 중반에 아내들을 얻었다고 가정하면, 노아의 나이는 적게 잡아도 오백 이십 세 무렵이었을 것이다. 홍수는 노아 육백 세 때에 내렸으니(창 7:6), 하나님이 홍수가 있을 것을 예고하신 후 실제 홍수가 있기까지는 대략 팔십 년 정도이다.

여러 가지이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박해로 인한 순교이다(계 20:4). 또한 성경은 재앙이 덮이기 전에 하나님이 의인을 먼저 데려가신다고도 말한다(사 57:1). 어떤 경우이든지 간에, 신자가 일찍 죽음을 맞는 것은, 죄로 인해 시기상조의 죽음을 맞는 것과는 엄연히 다르다. 신자에게는 죽음이 언제 찾아온다 해도 두려움이 아니다. 하지만 죄 가운데 죽는 불신자들에게는 장수하여도 죽음이 엄청난 공포이다. 그 이유인 즉,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 죄가 그들 안에 있기 때문이다(히 10:26-27).

히 10:26-27 _____

불신자들도 한계 수명에 이르러 죽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그들의 ‘장수’가 복이 아닌 것은, 한 평생 그들이 ‘사망의 길’을 살다가 인생의 마지막에 맞을 현실이 ‘죽음’의 두려움이기 때문이다(잠 11:19; 14:12). 그들의 인생은 어둠이 더욱더 짙어 지는 과정일 뿐, 죽음 후에 맞을 ‘내일 아침’이라는 것은 영원히 그들에게 없다(사 17:14). 불신자들은 죽음 후를 준비함이 없이 일생동안 서로 충돌하며 여기서 ‘어떻게 사는 것’만 생각하고 살았기에(눅 12:19-20), 그들의 ‘장수’는 헛된 세월을 보낸 기간이고, 영원히 후회할 세월을 땅에서 더 많이 보낸 결과에 불과하다.

눅 12:19-20 _____

자기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는 이유가 ‘죄’라고 했는데, 모든 불신자들이 죄 가운데 죽지만(요 8:21, 24), 지나친 악과 지나친 어리석음은 죽음의 기한을 앞당기는 죄이다(전 7:17). 예를 들어, 성경은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의 반도 살지 못할 것이다”(시 55:23)라고 선포한다. 살인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은 영원한 심판에 이르기 전에 땅에서 죄의 심판을 받는 것이다. 다윗이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시 139:19)라고 고백한 것도, 사람이 범한 죄에 대해 명백한 결과가 찾아올 것을 예고한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악인에게서 ‘살 날’을 빼앗으시는 것이다(전 7:17). 그러므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거나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할 이유가 없다.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내 입의 판단으로 세상이 정화되고 옳은 길로 돌아온 적이 있었는가? 오히려 불평하고 시기할 사안들을 하나님께 가져가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신원하시고 판단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 불의한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태도이다.

전 7:17 _____

Q. 불신자들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왜 사망의 길을 걷는 것일까?

시 73:3-9 _____

* * *

2. 불신자는 이미 멸망의 현실을 살고 있다.

전 세계에 가장 잘 알려진 성경구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그런데 이 구절을 전후 문맥 없이 사람들에게 알리다 보니 구절 자체의 의미도 왜곡되었고, 이어지는 구절들의 중요성도 간과되었다. 구원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보편적 은혜가 아니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한 구절만 인용해 보아도 확실해 진다. 예를 들면 이같은 말씀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요 17:9). 사람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믿는 자마다 다 구원하실 것이라고 복음을 전한다. 하지만 “이처럼”은 ‘이만큼’이 아니라, ‘이와 같이’이다. 즉, “이처럼”은 ‘사랑의 정도’가 아니라 ‘사랑의 방식’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해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와 같이’ 사랑하셨는데(=자기보다 우선에 두셨는데), 그 방식은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심이었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에 독생자를 주신 목적은 ‘벌써 심판을 받은 세상’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시는 것이다. 즉, 이미 세상은 멸망이라는 심판을 받았고, 하나님은 그 세상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찾아내어 독생자를 믿게 하심으로써 구원하시는 것이다. 이 사실도 하나님의 선택적 구원을 명확히 선포하고 있다.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진 세상인데, 하나님이 그 세상을 다시 심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실 이유가 없다. 독생자가 오신 것은 오직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이다. 심판이 선고되었으나, 아직 멸망이 시행되고 있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구원을 작정하신 백성이 아무도 멸망치 않고 하나님께 돌아올 일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벧후 3:9). 하지만 멸망은 ‘하나님의 심판이 선고된 대로’ 반드시 시행될 날이 온다. 이것이 죽음 이후에 찾아올 영원한 심판이다.

벧후 3:9 “너희를 대하여” _____

이러한 설명은 요한복음 3장 16절과 이어지는 구절들을 연결할 때 더욱 명백해진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므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로 내세워 하나님이 세상을 다 구원하실 것처럼 말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다. 이런 점에서 요한복음 3장이 ‘거듭남’에 대한 가르침을 먼저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구원이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된다는 사실이 요한복음 3장 16절보다 먼저 언급되었다. 이로 보건대 16절 하반절에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의 강조점은 “그를 믿는 자마다”가 아니라 ‘얻게 하려 하심’에 있다. 즉, “그를 믿는 자마다”는 하나님이 거듭나게 해 주시는 사람들이고, 그것이 곧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이다.

Q. 용서받지 못하고 죄 가운데 죽는 것이 사후에 어떤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요 8:21-24 _____

* * *

3. 불신자는 지옥에 던져진다.

멸망이란 단어의 뜻이 ‘망하여 없어지다’이지만, 불신자들이 죽음 후에 맞을 ‘멸망’은 순간 당하고 끝나는 사건이 아니다. 재기할 기회가 주어지는 사건도 아니다(잠 11:7). 멸망은 그들에게 영원한 현실이다. 성경은 그 멸망의 현실을, 비유이든 실제이든, 세 가지 대표적인 단어로 묘사한다. 첫째는 불꽃, 둘째는 캄캄한 어둠, 셋째는 수치이다. 이 단어들을 비유로 보면, ‘불꽃’은 고통이고(눅 16:24; 히 10:27), ‘어둠’은 단절이며(마 25:30; 벘후 2:17), ‘수치’는 죄책 또는 죄벌(罪罰)을 의미한다(단 12:2).

신자들이 행위에 따라 상을 받듯이, 불신자들도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계 20:11-15). 심판 후에 신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불신자들도 영원한 심판을 받고 그들의 삶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간다. 그러나 신자들이 영광스럽게 입성하는 것과는 달리 그들은 바깥 어두운 지옥으로 던져진다(막 9:45-48). 성경은 같은 사건을 ‘불못에 던져진다’고도 말한다. 성경은 이 불못을 둘째 사망이라고 부른다(계 20:14). 이 불못에는 사망과 음부도 던져지고,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던져져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계 20:10). ‘사망’의 의미가 이전의 모든 힘을 잃어버리고 단절되는 것이라고 할 때, 지옥에서는 모든 존재가 이전의 권세를 잃어버리고 뒤섞여 고통하고, 사망조차 힘이 없는 곳이다. 그래서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이 지옥은 영원한 현실이다. 우리에게는 지옥 내면의 현실에 대해 그 이상 알려진 바가 없고, 그것은 불신자들이 체험할 것이다.

Q. 하나님이 불신자들의 죄를 그들의 원대로 내버려두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롬 1:24, 26, 28 _____

* * *

기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습니다. 그러하여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백성은 아담 안에서 태어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에는 변개함이 없습니다. 세상 끝 날까지 불신의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는 생명의 길을 따라 살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